

##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 Children's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Happiness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유 미 숙\*\*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정 계 숙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 수 박 수 홍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차 지 량\*\*\*

양산 천성초등학교

교 사 홍 광 표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Yoo, Mee-Sook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 Chung, Kai-Sook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 Park, Su-Hong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Cha, Jee-Ryang

Choenseong Elementary School

Teacher : Hong, Kwang-Pyo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s and conditions of happiness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lso of the perceptions of happiness according to their needs level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There was a total of 649 participants, of which 405 were children and 244 were adolescents, all of whom were attend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the perceptions of happiness and the conditions of happiness which consisted of 57 (for children) or 58 (for adolescents) ite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and adolescents both felt happy regarding the variables of 'flow', 'health and appearance',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children felt happier than adolescents. Second,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ived achievement-related variables as important conditions of happiness. Additionally, variables of 'relations with parents and relatives' and 'positive emotions' were the conditions that children needed. However, adolescents rated the need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higher than children. Lastly, children and adolescent groups who perceived the necessity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t a high level were found to be happier than those who perceived the necessity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t a low level.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of providing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support to improve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주요어(Key Words) : 행복(happiness), 행복의 조건(the conditions of happiness), 아동(children), 청소년(adolescents)

---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0-B00168).

\*\* 주 저 자 : 유미숙 (E-mail : msyoo@sookmyung.ac.kr)

\*\*\* 교신저자 : 차지량 (E-mail : lemon611@naver.com)

## I. 서론

2003년 이후 급격하게 몰아친 웰빙(well-being) 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더욱 큰 개념인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포괄하는 행복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Happiness Index)는 10점 만점에 4.2점이었고 OECD 국가 34개 중 32위(중앙일보, 2012)인 것을 보면, 행복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떠한 요인들이 행복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학계의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동안 행복은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Diener & Emmons, 1984; Diener et al., 2010), '심리적 안녕감'(Ryff, 1989; Ryff & Keyes, 1995), '삶의 질'(Erikson, Clarke, & Micheal, 2010) 등으로 불리며 연구되어왔다. Diener 등(1999)은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였는데,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인 인지적 요소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최근 긍정심리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Seligman(2002)은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행복감이란 생활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정으로서 만족감, 충만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Park, 2002).

이후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데, 성, 연령, 소득수준, 건강, 종교, 학력 등의 요인들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03; Moon, Lee, & Park, 2009; Braun, 1976; Glenn & Weaver, 1979). 둘째는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반영되는 성격, 통제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되는 개인내적 요인이 있다(Koo, 2005; Kim, 2010; Moon et al., 2009; Grob et al., 1996; Veenhoven, 1994). 세 번째는 사회 및 관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체계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 및 또래 등과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Kim, Park, & Kwak, 1998; Park & Kim, 2008; 서은국, 2007; Cohen & Wills, 1985; Fordyce, 1974; Vaillant, 2002). 또한 행복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밝히고자 한 척도 개발 연구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아동의 행복감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과외생활, 전반적 생활환경, 욕구만족이 제시되었고(Choi et al., 2009),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월자 수용, 삶의 의미 추구, 삶의 만족, 관계, 성취가 포함되었다(Choi & Hyun, 2011). 그 외 김명소·차경호·임지영(2002)은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으로 14개 하위요인을, Chung et al.(2013)은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의 구성요소로 8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행복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지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중 한 개인의 이후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행복도 가치 있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에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으로 빨라지는 사춘기, 자아의식의 발달로 인한 독립과 의존 욕구의 상충(이은경, 2007), 학업적 스트레스, 사회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심한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는(Jeon & Jung, 2009) 청소년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Linda and Oh (2011)는 한국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약물 오용,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부족, 정신건강 쟁점을 포함한 위험행동은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을 측정 한 결과, 약 40% 정도가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파인뉴스, 2008).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Kim, 2009; Park, Kim, & Min, 2002; 차경호, 김명소, 2002), 부모의 적극적 개입 혹은 적절한 감독이 많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Kim, Park, & Baak, 2012; Kim, 2009; Jeon, Shin, & Yoo, 2011) 더 행복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이 시기는 친구 및 인간관계가 중요하고(Jeon et al., 2009; 서은국, 2007), 학업적 성취(Park & Kim, 2009; 임미향·박영신, 2006), 신체 이미지(이은경, 2007), 여가 활동(Lee, 2003) 등의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랫동안 아동기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로 생각해 왔으나(Kim, Lee, & Lee, 2009), 근래 급격한 사회변화와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에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다(이규순, 2000; Cho et al., 2009). 이렇듯 아동들이 즐겁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박탈되어 가는 현실에서 아동들의 행복 또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개방적 의사소통, 긍정적 지지(Kim, 2007; Kim & Kang, 2008; Park, Kim, & Hong, 2011; Shin, 2007; Jung & Moon, 2011) 등과 같은 부모 요인이 아동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아동의 친구 및 대인관계(Paek, 2008; Shin, 2007), 아동의 자아특성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 신뢰(Jun & Jang, 2009; Jung et al., 2011)가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그 외 학업성적이 좋고(Jun et al., 2009) 방과 후 활동을 하지 않으며 여가 활동을 많이 할수록(Cho et al., 2009; Paek, 2008)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부모, 사회적 관계, 학업 및 여가 활동 등으로 유사한 항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달단계별 행복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Seong and Yoon(2010)도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하나의 단계로 묶어 학업성취, 신뢰의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의 행복요인을 도출하였고 Park et al.(2010)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행복지수를 OECD 국가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및 특성은 다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발달단계마다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 아동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 가게 되므로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는 시기인데, 인지능력이 발달되어 지적 성장 및 지적 기술의 습득과 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부모와 더불어 교사 및 친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격적, 사회적 발달을 하게 된다. 반면, 청소년기는 인지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신체적, 생리적으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적응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개인내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고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이 커다란 과업이고(Lee & Lee, 2011),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수용 및 신뢰감이 더해지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사회화 된다(Choi, 2006; Hunter & Youniss, 1982).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은 각 단계에서의 발달과 특성이 다르므로 그들의 관심사 및 추구하는 바도 상이하며, 그 결과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나 요인, 그 정도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우선되는 조건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이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경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행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 혹은 청소년 각각의 행복 인식에 관한 연구들(Kim, 2009; Cho et al., 2009; Jun et al., 2009; Han et al., 2012)이며, 연령별 행복감을 비교한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임미향 외(2006)와 학교 수준별로 행복감을 비교한 Kim et al.(2012) 정도이다. 나아가 행복의 전제 조건을 연구한 것은 Kim et al.(2012)이 청소년과 그들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 조건을 분석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

로,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과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각각이 느끼는 행복 조건의 필요 정도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 어떠한 측면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며 행복 조건에 대한 필요도와 행복감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토대로 각 발달단계에 맞는 행복 증진 방안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현재 자신의 행복감은 어떠한가, 그것은 아동과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 및 청소년이 인식하는 행복의 조건은 어떠한가, 그것은 아동과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 및 청소년이 인식하는 행복 조건의 필요도에 따라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각 1개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 및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문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 및 정서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및 고등학교 1곳에 재학 중인 아동 및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아동 474명, 청소년 308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아동 405명, 청소년 244명씩 총 649명이 최종대상이 되었다. 먼저, 연구대상 중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 40명(9.9%), 4학년이 210명(51.9%), 5학년이 77명(19.0%), 6학년이 77명(19.0%)이었고, 이 중 185명(45.7%)은 남학생, 219명(54.1%)는 여학생이었다. 연구대상의 어머니는 30~39세가 170명(42.0%), 40~49세가 184명(45.4%), 50세~59세가 3명(0.7%), 60세 이상이 2명(0.5%)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명(1.0%), 중학교 졸업이 17명(4.2%), 고등학교 졸업이 208명(51.4%), 대학교 졸업이 159명(39.3%), 대학원 졸업이 11명(2.7%)이었으며, 259명(64.0%)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140명(34.6%)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16명(4.0%), 100~200만원 미만이 46명(11.4%), 200~300만원 미만이 81명(20.0%), 300~400만원 미만이 126명(31.1%), 400만원 이상이 127명(31.4%)이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160명(65.6%), 고등학생이 83명(34.0%)이었고, 이 중 211명(86.5%)은 남학생, 32명(13.1%)은 여학생이었다. 연구대상의 어머니는 20~29세가 1명(0.4%), 30~39세가 39명(16.0%), 40세~49세가 189명(77.5%), 50세 이상이 11명(4.5%)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명(1.2%), 중학교 졸업이 7명(2.9%), 고등학교 졸업이 145명(59.4%), 대학교 졸업이 78명(32.0%), 대학원 졸업이 8명(3.3%)이었다. 어머니들 중 143명(58.6%)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69명(28.3%)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0명(4.1%), 100~200만원 미만이 27명(11.1%), 200~300만원 미만이 49명(20.1%), 300~400만원 미만이 79명(32.4%), 400만원 이상이 73명(29.9%)이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 행복',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복의 필요조건'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행복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Kim et al.(2003)이 제시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6요인에 기초하여 이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의 바른 성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를 제외하고 '건강과 외모'는 모두 신체적인 요소를 다루므로

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요인의 문항 표현은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를 위해 수정하였다. 또한 Seligman (2011)의 5개 행복 구성요인 중 김명소의 16가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요인인 '몰입'과 '긍정적 정서'를 추가하였으며, 학령기 이후 아동의 생활의 중심이 점차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So, 2012) 결과로부터 '학교생활 적응'요인을 추가하여 총 16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별로 3~5가지의 하위항목을 구성하여 아동용 설문지는 총 57문항, 청소년용 설문지는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하위 요인들 중 '사회적 지위 및 인정'에서 청소년용 설문지에만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1문항 더 추가시켰다(<Table 1> 참조).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위해 아동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및 유아교육학 전공 교수 4명,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1명, 박사과정 수료 연구원 4명이 연구목적의 적절성, 내용의 일관성, 각 요인 내 문항 간 상호배타성, 용어 사용의 적절성, 응답 방식의 적절성, 문장의 이해도 등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각 설문지의 질문 내용요소는 모두 같으나 질문 목적과 대상을 달리 하여 사용하였다. 두 설문지의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평정되어 총점 범위가 아동의 경우 57점~342점, 청소년의 경우는 58점~348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그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아동이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 행복'이 .93,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 행복'이 .96, '아동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복의 필요조건'이 .96, '청소년

Table 1. Composition and Number of Questions of the Scale

	Children	Adolescents
	Perceptions of Happiness /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Perceptions of Happiness /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Variables	Economic Strength(3),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3), Leisure(3),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3), Self-development and goal-seeking(3), Independency(5), Sociocultural environment(3), Religion(3), Altruism(3), Relations with parents and relatives(5), Interpersonal relations(5), Positive view of life(3), Health and appearance(3), School-related adjustment(5), Positive emotions(4), Flow(3)	Economic Strength(3),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3), Leisure(3),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4), Self-development and goal-seeking(3), Independency(5), Sociocultural environment(3), Religion(3), Altruism(3), Relations with parents and relatives(5), Interpersonal relations(5), Positive view of life(3), Health and appearance(3), School-related adjustment(5), Positive emotions(4), Flow(3)
Number of Questions	57	58

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복의 필요조건'이 .97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은 201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초등학교 2곳 19개 학급, 중학교 2곳 9개 학급, 고등학교 1곳 5개 학급에 각각 배포되었다. 설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전달되고 수거되었다. 전체의 약 65%인 78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에는 자료에서 제외한 후 총 649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은 SPSS 20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과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하위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종속변수 간에 상관이 높아 M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행복 요인 중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은 아동과 청소년 도구의 문항수가 서로 다르므로 z점수로 변환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발달단계별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필요도 수준에 따라 상위 30%와 하위 30% 두 집단으로 나누어 행복감에 대한 인식 차이를 MANOVA 검증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과 차이

아동 및 청소년이 현재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은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요소별 문항 평균에 대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현재 행복에 대한 인식의 응답평균 범위는 6점 만점에 3.45점~4.68점이었다. 행복요소별로 살펴보면 응답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몰입'(M=4.68, SD=1.05)이

Table 2.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s of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Variables of Happiness	M(SD)				F
	Children(n=345)		Adolescents(n=234)		
Economic Strength	3.94	(1.08)	3.69	(.95)	8.07*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	4.37	(1.07)	3.95	(1.06)	21.27***
Leisure	4.40	(1.08)	4.28	(.94)	2.01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	4.02 / .14 <sup>+</sup>	(1.13) / (1.08) <sup>+</sup>	3.68 / -.18 <sup>+</sup>	(.86) / (.82) <sup>+</sup>	15.08***
Self-development and goal-seeking	4.21	(1.13)	3.66	(1.03)	34.91***
Independency	4.13	(1.00)	3.90	(.86)	8.24**
Sociocultural environment	4.19	(1.16)	3.77	(.98)	19.90***
Religion	3.45	(1.59)	2.81	(1.43)	24.72***
Altruism	3.80	(1.30)	3.16	(1.07)	39.43***
Relations with parents and relatives	4.36	(1.17)	3.98	(1.12)	14.64***
Interpersonal relations	4.30	(1.12)	4.21	(.97)	.94
Positive view of life	4.28	(1.24)	4.23	(1.06)	.20
Health and appearance	4.42	(1.12)	4.22	(1.00)	4.63*
School-related adjustment	4.06	(1.10)	3.64	(.91)	22.99***
Positive emotions	4.56	(1.18)	4.12	(1.08)	12.12**
Flow	4.68	(1.05)	4.38	(1.07)	11.46**

<sup>+</sup> M(SD) changed into z-score.  
\*p < .05, \*\*p < .01, \*\*\*p < .001

었고, '긍정적 정서'(M=4.56, SD=1.18), '건강과 외모'(M=4.42, SD=1.12), '여가'(M=4.40, SD=1.0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은 몰입 측면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긍정적 정서, 건강과 외모 및 여가 측면 순으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현재 행복에 대한 인식의 응답평균 범위는 6점 만점에 2.81점~4.38점이었다. 행복요소별로 살펴보면 응답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몰입'(M=4.38, SD=1.07)이었고, '여가'(M=4.28, SD=.94), '건강과 외모'(M=4.22, SD=1.00), '대인관계'(M=4.21, SD=.9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은 몰입 측면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여가, 건강과 외모 및 대인관계 측면 순으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MANOVA 검증 결과, 발달단계에 따른 현재 행복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84, F=6.61,  $p$ <.001). 16가지의 행복의 필요조건 중 대인관계, 긍정적 인

생관, 여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더 행복감이 더 높았다. 따라서 아동이 청소년 보다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발달단계에 따른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과 차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행복의 조건은 어떠한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요소별 문항 평균에 대해 M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기의 경우,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M=4.68, SD=1.29), '긍정적 정서'(M= 4.68, SD=1.32),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M=4.67, SD=1.23) 순의 행복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행복의 필요조건은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M=5.08, SD=1.00), '몰입'(M=5.01, SD=1.04), '성취 및 자기수용'(M=4.98, SD= 1.04)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측면

Table 3.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s of Conditions of Happines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Variables of Happiness	M(SD)				F
	Children(n=359)		Adolescents(n=238)		
Economic Strength	4.28	(1.21)	4.39	(1.07)	1.19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	4.61	(1.22)	4.98	(1.04)	14.54***
Leisure	4.63	(1.23)	4.87	(1.05)	4.81*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	4.41 / -.05 <sup>+</sup>	(1.22) / (1.06) <sup>+</sup>	4.62 / .13 <sup>+</sup>	(.98) / (.95) <sup>+</sup>	6.22*
Self-development and goal-seeking	4.67	(1.24)	5.08	(1.00)	17.80***
Independency	4.44	(1.22)	4.85	(1.93)	19.94***
Sociocultural environment	4.49	(1.25)	4.86	(1.04)	13.77***
Religion	3.81	(1.67)	3.34	(1.65)	11.69**
Altruism	4.23	(1.37)	4.23	(1.30)	.00
Relations with parents and relatives	4.68	(1.29)	4.88	(1.08)	3.88*
Interpersonal relations	4.54	(1.18)	4.86	(1.01)	11.64**
Positive view of life	4.64	(1.36)	4.96	(1.10)	9.54**
Health and appearance	4.57	(1.27)	4.91	(1.04)	11.93**
School-related adjustment	4.39	(1.24)	4.52	(1.03)	1.70
Positive emotions	4.68	(1.32)	3.99	(.88)	50.23***
Flow	4.07	(1.26)	5.01	(1.04)	9.70**

<sup>+</sup> M(SD) changed into z-score.

\* $p$  < .05, \*\* $p$  < .01, \*\*\* $p$  < .001

의 행복 요소가 가장 많이 필요하였고, 긍정적 정서,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측면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은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측면의 행복 요소가 가장 많이 필요하였고, 몰입, 성취 및 자기수용 측면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MANOVA 검증 결과, 발달단계에 따른 행복의 조건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λ=.49, F=38.47, p<.001). 16가지의 행복의 요소 중 13개의 요인(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대인관계, 긍정적 인생관, 건강과 외모, 긍정적 정서, 몰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중 '종교'(F=11.69, p<.01)와 '긍정적 정서'(F=50.23, p<.001)를 제외한 11개 요인은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대체적으로 행복

조건에 대한 욕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행복 조건의 필요도 수준에 따른 현재 행복의 인식 차이

아동 및 청소년의 현재 행복 조건의 필요도 수준에 따라 현재 행복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의 조건 필요도 인식이 상위 30%에 속하는 집단을 상위집단으로, 하위 30%에 속하는 집단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 문항 평균에 대해 M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첫째, 아동의 행복 조건의 필요도 수준에 따른 현재 행복에 대한 인식은 모든 행복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Wilks'λ=.55, F=8.69, p<.001)을 알 수 있었다. 행복조건의 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든

Table 4.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s of Happiness according to Children and Adolescents' Level of the Needs of Conditions of Happiness

Variables of Happiness	Children		F	Adolescents		F
	Upper Group (n=95)	Lower Group (n=91)		Upper Group (n=68)	Lower Group (n=68)	
	M(SD)			M(SD)		
Economic Strength	4.37(1.13)	3.38(1.07)	37.20***	3.95( .95)	3.45( .97)	9.22**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	4.99( .96)	3.61(1.11)	82.67***	4.05(1.13)	3.63(1.01)	5.38*
Leisure	4.88(1.04)	3.82(1.08)	46.27***	4.49( .93)	3.95( .93)	11.67**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	4.46(1.20)	3.32(1.03)	44.48***	3.88( .93)	3.54( .71)	5.70*
Self-development and goal-seeking	4.81(1.11)	3.53(1.09)	62.58***	3.82(1.02)	3.45( .97)	4.63*
Independency	4.77(1.04)	3.61( .90)	65.50***	4.01( .94)	3.75( .78)	3.22
Sociocultural environment	4.88(1.14)	3.58(1.15)	59.54***	3.88(1.03)	3.60( .81)	3.00
Religion	3.94(1.74)	3.17(1.27)	11.69**	3.09(1.55)	2.69(1.32)	2.65
Altruism	4.38(1.39)	3.34(1.24)	29.12***	3.18(1.10)	3.14(1.07)	.04
Relations with parents and relatives	4.81(1.17)	3.71(1.18)	40.54***	4.16(1.14)	3.82(1.00)	3.45
Interpersonal relations	4.91(1.07)	3.61(1.07)	67.93***	4.56( .92)	3.96( .88)	15.11***
Positive view of life	5.01(1.08)	3.58(1.21)	72.86***	4.44(1.02)	3.91(1.00)	9.33**
Health and appearance	4.89(1.06)	3.83(1.15)	42.76***	4.37(1.12)	4.10( .94)	2.32
School-related adjustment	4.68(1.22)	3.41( .97)	61.63***	3.84( .92)	3.48( .89)	5.37*
Positive emotions	5.04(1.23)	3.73(1.15)	56.07***	4.40(1.09)	3.81( .95)	11.35**
Flow	5.39( .76)	3.97(1.08)	108.48***	4.67(1.04)	4.06( .98)	12.59**

\*p < .05, \*\*p < .01, \*\*\*p < .001

요소에서 행복을 더 높은 수준에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 조건의 필요도 수준에 따른 현재의 행복 인식은 '부모의 경제력'( $F=9.22, p<.01$ ), '성취 및 자기 수용'( $F=5.38, p<.05$ ), '여가'( $F=11.67, p<.01$ ), '사회적 지위 및 인정'( $F=5.70, p<.05$ ),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F=4.63, p<.05$ ), '대인관계'( $F=15.11, p<.001$ ), '긍정적 인생관'( $F=9.33, p<.01$ ), '학교생활적응'( $F=5.37, p<.05$ ), '긍정적 정서'( $F=11.35, p<.01$ ), '몰입'( $F=12.59, p<.01$ )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Wilks' $\lambda=.77, F=2.24, p<.01$ ). 따라서 청소년은 행복 조건의 필요도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일부 요소의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현재 어떠한 요인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며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각각이 인식하는 행복 조건의 필요도 수준 상, 하위집단에 따라 현재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현재의 행복을 살펴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몰입, 건강과 외모, 여가의 세 요인에서 다른 요소에서 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공히 가장 높은 행복감 요소는 몰입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어떤 활동에 깊게 몰입하여(Csikszentmihalyi, 1990) 열정적으로 참여하는(Seligman, 2006) 면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몰입추구 경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Hwang & Kim (2009)과 몰입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과 관계가 있다는 Yang(2010)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컸는데, 이는 이 시기가 발달 특성 상 신체 및 외모가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그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것 뿐 아니라 최근 TV, 핸드폰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와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가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Kim, 2003). 또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공부 외에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때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ark et al.(2011)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아동이 적극적인 여가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요컨대, 아동과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즐기고 생활에 여유를 가지며 신체적·정신적 관리를 잘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여가 혹은 취미활동을 스스로 결정하여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신체이미지 뿐만 아니라 정신 내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학교 및 사회문화를 정착시켜 이들이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청소년 집단 내에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행복하기 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인관계가 중요함은 많이 알려져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를 포함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대인관계를 할수록 행복하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Kim et al., 2012; 박아청, 2007; Park et al., 2011).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왕따, 부적응,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정정임·주은선, 2006)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대인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평균적인 대인관계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원만한 또래관계를 돕는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행복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이타심,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건강과 외모, 학교생활적응, 긍정적 정서, 몰입 요인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서 높은 지각을 보였던 임미향 등(2006)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의 행복감이 더 높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상급 학교에 올라가면서 수행해야 하는 학업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커지면서 청소년의 삶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생활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의 중요한 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모두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은 그 다음으로 몰입과 성취 및 자기수용의 조건을 매우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어느 연령에서 보다 높기 기대되는 학업적 성취와도 연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중, 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에게까지 심화된 학력 경쟁



(Jun et al., 2009)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특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 성적 및 성취도와 행복이 관련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Park et al., 2009; Jun et al., 2009). 한편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외에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긍정적 정서를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는 아동기의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었다. 가족 요인과 관련되는 아동의 행복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Kim et al., 2008; Jung et al., 2011; Cho et al., 2009) Kim & Han(2006)은 한국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변의 환경과 여러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는 내적으로 즐겁고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이다. 긍정적인 심리를 많이 경험한 아동이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가지고 있고, 사회활동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의 양이 늘어날수록 사회활동의 양도 늘어난다는 연구(Kim, 2007; Watson et al., 1992)는 긍정적 정서가 아동의 행복에 주요한 필요조건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인간은 아동기를 거치면서 1차적 관계인 부모 혹은 친척들과 다양한 관계적 경험을 통해 지지를 받고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느끼면서 발달하는 것이 그 시기 뿐 아니라 이후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및 부모-자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즐겁고 기분 좋은 생활을 통해 아동의 긍정적 정서가 증진되고 부모와의 관계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중요 조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느끼는 행복의 필요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이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대인관계, 긍정적 인생관, 건강과 외모, 몰입의 11개 요인에서 아동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감이 낮고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연구(Kim, Oh, & Ha, 1999)에서처럼 청소년이 아동보다 자신의 삶에서의 만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어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즉 더 많은 일상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의 세심한 관심과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의 필요도에 따른 현재 행복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공통적으로 여러 행복의 필요조건을 높게 인식한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많은 요인에서 행복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즉 더 높은 욕구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과거의 조건, 이상적인 만족감 수준 및 욕구나 목표 등 여러 표준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평가하는데, 상향적 비교가 만족감의 감소를 유발하는 반면 하향 비교가 만족감을 증가시킨다고 한 Michalos (1985)의 괴리이론(discrepancy theory)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괴리, 만족감과 행위는 행위자의 연령, 성, 교육, 자존감 및 사회적 지위에 의해 직, 간접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던 점(Michalos, 1985)은 아동, 청소년의 인식이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 간에도 다소 다른 결과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설명을 지지한다. 즉, 아동의 경우에 행복의 필요조건을 높게 인식한 상집단이 모든 요소에서 하집단에 비해 더욱 행복하게 느끼고 있음이 밝혀진 반면, 청소년은 부모의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대인관계, 긍정적 인생관, 학교생활적응, 긍정적 정서, 몰입 요소에서만 상집단이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수록 높은 행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행복주의적 관점, 즉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성 또는 안녕감을 행복으로 보는 관점(Ryff, 1989)에서 행복 요인을 채택한 경우, 교육은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Michalos, 2008) 아동과 청소년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행복 조건에 대해 더 높은 욕구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몰입, 건강과 외모, 여가, 대인관계 등의 요인에서 현재 행복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성취 관련 요인을 행복의 주요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경우는 가족과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와 긍정적 정서를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여러 요인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청소년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행복의 필요조건을 높게 인식한 아동과 청소년이 더욱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행복 척도는 포괄적인 행복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요인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문항 표현을 아동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였으나, 아동과 청소년 고유의 행복 요인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 어떠한 요인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 어떤 요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어,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어떤 교육적, 심리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김명소 · 차경호 · 임지영(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25-731.
- 박아청(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실태와 이를 위협하는 요소.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16.
- 서은국(2007). 한국 청소년의 주요 생활경험과 행복감.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7-28.
- 이규순(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7). 청소년의 행복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71-90.
- 임미향 · 박영신(2006).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연구**, 12, 159-179.
- 정정임 · 주은선(2006). 또래 상담 활동이 따돌림 경험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주는 영향: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1-16.
- 중앙일보(2012). 한국 행복지수 32위... OECD 국가 중 '최하위'. 2012.7.10.
- 차경호 · 김명소(2002).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3-209.
- 파인뉴스(2008, 2, 22). 청소년 행복지수 53.08...만족도 낮아. <http://www.파인뉴스.kr>에서 2013, 3, 5 인출.
- Braun, P. M. W.(1976).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Cho, S. Y., Shin, H. Y., Chio, M. S., & Choi, H. Y.(2009). Surve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129-144.
- Choi, C. S.(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ies,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adjustment among the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Choi, H. Y., Shin, H. Y., Choi, M. S., & Cho, S. Y.(2009).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School-aged Korean Children(HSSKC).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5), 1-11.
- Choi, S. J., & Hyun, J. S.(2011).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youth's happiness. *Youth Culture Forum*, 27, 180-207.
- Chung, K. S., Park, J. K., Park, S. H., Yoo, M. S., Choi, E. S., & Seo, B. S.(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aternal Happiness Scale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1), 27-43.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01-357.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Collins.
- Diener, E., & Emmons, R. A.(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2010). Increasing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with profound multiple disabilities :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37, 531-534.
- Erickson, D., Clarke, S., & Micheal, K.(2010). AD/H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mpleted by children or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3), 1-8.
- Fordyce, M. W.(1974). *Human happiness: The findings of*

- psychological research*. Unpublished book, Edison Community College.
- Glenn, N. D., & Weaver, C. N.(1979). A note on family situation and global happiness. *Social Forces*, 57, 960-967.
- Grob, A., Little, T. D., Wanner, B., & Wearing, A. J. (1996). Adolescents well-being and perceived control across 14 sociocultur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85-795.
- Han, M., Choi, I. C., Kim, B. J., Lee, H. J., Kim, K. M., & Ryu, S. A.(2012). Happiness of Korean adolescence: Age-based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217-235.
- Hunter, F. T., & Youniss, J.(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Hwang, J. W., & Kim, K. H.(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1), 57-71.
- Jeon, K. S., & Jung, T, Y.(2009). Happiness determinants for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1), 133-153.
- Jeon, S. H., Shin, M., & Yoo, M. S.(2011).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monitoring, self-determination,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2), 73-87.
- Jun, M. K., & Jang, J. S.(200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during childhoo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103-118.
- Jung, H. J., & Moon, H. J.(2011).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child's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3), 21-42.
- Kim, C. S.(2009). A study of determinants of happiness o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3), 649-665.
- Kim, E. J., Oh, K. J., & Ha, E. H.(1999). 3 months follow-up study: Depression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of marri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2), 15-26.
- Kim, H. J.(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affect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Kim, J. W., Lee, J. A., & Lee, I. K.(2009). Relationships between Lower Grade Elementary Students' After-School Happiness by Stress and Playful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37-53.
- Kim, K. A.(2003).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body cathexi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K. M.(2010). Correlates of Happiness and Self-Acceptance Promotion in College Counsel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3), 863-883.
- Kim, M. S., & Han, Y. S.(2006).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Survey Research*, 7(2), 1-38.
- Kim, M. S., Kim, H. W., Han, Y. S., & Lim, J. Y.(2003). Explorations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2(2), 1-33.
- Kim, M. S., Kim, H. W., Cha, K. H., Han, Y. S., & Lim, J. Y.(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415- 442.
- Kim, U. C., Park, Y. S., & Kwak, K. J.(1998).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students: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life-satisfaction level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79-101.
- Kim, U. C., Park, Y. S., & Baak, S. Y.(2012).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2), 197-225.
- Kim, Y. H.(2007).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Y. H., & Kang, M. H.(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s- child communication patter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35-54.
- Koo, J. S.(2005).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efficacy*

- beliefs, life experienc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M. R.(2003). Daily contextual variations in levels of adolescent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6*(4), 193-209.
- Lee, Y. O., & Lee, J. S.(2011). A study of the difference by development stages on daily stress, perceived environment, psychological problem of child ·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6*(1), 53-79.
- Linda, L. Caldwell, & Oh, S. S.(2011). Korean Adolescent Leisure, Health and Happines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5*(3), 173-180.
- Michalos, A. C.(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347-413.
- Michalos, A. C.(2008). Education, happines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3), 347-366.
- Moon, S. K., Lee, M. Y., & Park, S. H.(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lbeing of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137-153.
- Paek, S. H.(2008). *The relation between daily life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H. C., Kim, S. B., & Hong D. A. G.(2011).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s and social supports on happiness: Children's perspectiv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167-193.
- Park, J. I., Park, C. U., Seo, H. J., & Youm, Y. S.(2010).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2), 121-154.
- Park, S. K.(2002).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happiness applying reality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Park, Y. S., & Kim, U. C.(2008).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4), 801-836.
- Park, Y. S., & Kim, U. C.(2009).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3), 399-429.
- Park, Y. S., Kim, U. C., & Min, B. K.(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63-92.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eligman, M. E. P.(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Y.: Free Press.
- Seligman, M. E. P.(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Y.: Free Press.
- Seong, B. H., & Yoon, S. A.(2010).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6*, 103-134.
- Shin, M. D.(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ngju.
- So, S. S.(2012). *A Study on integration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yonggido.
- Vaillant, G. E.(2002). *Aging well :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landmark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Boston : Little-Brown.
- Veenhoven, R.(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 Watson, D., Clark, L. A., Mcintyre, C. W., & Hamaker, S.(1992).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011-1025.
- Yang, J. Y.(2010). *The relationship among orientations to happiness, religios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접수일 : 2013년 03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4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03일